

##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얼마나 깨끗하고 투명해야 하는가?

고후1:12

사랑침례교회 13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랑보다 더 강조한다. 새로운 성도들, 기존 성도들

요즘 부산제일성서침례교회, 신약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설명한다.

요즘 차에서 이런 제목의 설교들을 듣다 보니 거룩함에 대한 영상이 자동으로 뜬다.

지난 월요일 아침 존 맥아더, A Call to Holiness,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14.6만 뷰, 43분

영상, 2014년 12월 9일, 원래 2001년 R.C. Sproul 리고니어 콘퍼런스 설교

맥아더는 늘 진지한 모습으로 설교하는데 이 영상에서는 시작부터 엄숙하게 신중하게 설교를 한다.

처음 듣고는 아마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런 설교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최근에 들은 설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설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설교, 거룩한 사람을 사는 것, 그것이 성화이다.

모두가 구원받으면 거룩하게 살고 싶어 한다.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잘 안 된다. 왜?

맥아더 목사님은 그 이유와 방법을 설명한다. 한 마디로 그것은 우리의 양심과 관련이 있다. < >

양심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와 해결책

내가 볼 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다루는 설교이다.

맥아더 설교 시작

오늘 나는 거룩함에 이르는 길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중압감을 느끼고 있다.

내가 설교해야 할 주제가 무거운 주제라 두려움도 느끼고 있다.

교회에서 요즘 거룩함에 대해 많이 이야기한다.

우리는 우리 삶을 들여다보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신약성경에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명령이 매우 많이 들어 있다.

육신의 정욕, 육신의 행위, 육신이 살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비도덕적인

것, 비윤리적인 것을 피하라.

선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물로 드려라 등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성하라 등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갓난아이처럼 모든 악을 버리고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특별히 사도 베드로 전서1:15-16, 레위기 말씀

15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벧전 1:16) 기록된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성도들이 이럼 말씀을 많이 듣는데 여전히 거룩함의 전쟁에서 패하고 있다.

여러 성도들이 다가와서 이야기한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자매님, 목사님이 큰 죄에 빠져서 여러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시나요?

목사님 주변에는 목사님이 두려워하는 그룹이 있습니까?

네 제 주변에는 교회의 여러 목사님들과 장로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거의 모든 일은 그분들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과 매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매우 투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주님께 모욕을 가져올 일을 하면 이들이 제게 브레이크를 걸 것입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해 달라고 늘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네 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 성장했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세 명은 결혼해서 배우자도 있고 아들딸도 있습니다. 이들은 내게 무지막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카고에 사는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를 기억하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죄나 실수로 여러 사람의 삶을 망치지 않게 하려고 전화했어요.

아버지 삶이 비도적적인 일로 망가지면 우리 자식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해가 닥칩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는가?

내게는 11명의 손자 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할아버지가 본인이 가르친 대로 살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그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눈을 봅니다.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 줍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나의 추한 모습을 보일 수 없습니다. 내가 넘어지면 이 아이들의 믿음이 다 깨질 것입니다.

또 내게는 내 아내 패트리샤가 있습니다. 나는 내 아내에게 실망을 안기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 내 아내가 그리스도를 떠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드릴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도 내가 생각하는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살려면 밖이 아니라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도입 부분을 길게 이야기하고 간략하게 고후1:12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를 잠시 보고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고 다시 여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또 너희를 향하여는 더욱더 그리하였노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이제 저는 우리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룩함에 대한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내부의 전쟁에서 패하면 외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존 오웬: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죄를 죽이고 거룩한 사람을 살려면 양심이 깨끗해야 합니다.

즉 거룩한 삶, 성화의 핵심은 양심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양심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저의 임무는 여러분에게 양심에 대해, 양심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것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양심에 대해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천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은 양심 때문에 12년 동안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그가 이 12년 기간 중 어느 때라도 자기 양심을 버렸다면 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그는 당시 영국 국교회가 반대하는 것 즉 십자가의 복음을 가감없이 선포하였다는

죄목으로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안 하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 가족, 그리고 앞으로 모지 못하는 딸

그는 자기 양심을 버리고 밖으로 나가면 언제라도 남편과 아버지로서 잘 살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유 대신 투명한 양심을 택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의 저서 넘치는 은혜(Grace Abounding, page 123).

아내와 가족을 버려두고 옥에 갇힌 일은 내 뼈에서 살을 발라내는 것과 같은 아픔이었다.

감옥에 갇힌 것이 내게도 힘든 일이지만 내 가난한 가족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특히 앞을 보지 못하는 내 딸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그래서 울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믿음을 부인하고 옥에서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을 때까지 내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양심의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내부가 강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 양심이란 무엇인가?

양심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무엇을 하는가?

1984년에 일어난 일이다.

Avianca airline (아비앙카 항공 제트 비행기), 유럽에서 비행하다가 스페인에서 충돌, 보잉 707, 산으로 날라 가서 산과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기체는 산산조각 나고 순식간에 다 죽었다.

블랙박스 찾아서 분석함

비행기가 산으로 날아가자 컴퓨터가 알아차리고 기장에게 “기수를 드세요. 기수를 드세요”

그런데 기장의 말 “시끄러워” 그리고는 경고 소리를 꺼 버렸다.

그러자 조용해졌고 비행기는 잠시 후에 산과 충돌하였다. 모두가 순식간에 죽고 말았다.

대다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양심의 소리를 꺼 버리고 결국 망하고 만다. “시끄러워”

즉 양심이 보내는 정보를 거부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

비행기의 경보 시스템은 레이더를 통해 현실 직시, 경고

레이더는 산을 발견하였다. 현실: 산과 충돌할 것이다.

올바른 정보, 그래서 “기수를 들라”는 메시지를 보냄

그런데 기장이 시끄럽다고 경보 시스템을 꺼 버림, 잠시 후 충돌, 모두 즉사

(딤펢전1:18-20)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너에 관하여 주어진 대언들에 따라 내가 네게 이 책무를 주노니

곧 너는 그것들을 힘입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딤펢전 1:19)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딤펢전 1:20) 그중에 후메내오와 알렉산더

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준 것은 그들이 배워서 신성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 양심은 대단히 귀중한 선물

거룩함과 관련해서 양심의 역할을 잘 알아야 한다.

양심: 우리가 인생에서 충돌 코스로 진입할 때 그것을 피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보 시스템

양심은 아픔과 비슷하다.

우리는 아픔을 싫어하지만 아픔은 좋은 것이다.

우리 몸에 이상이 있음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아픔은 우리 몸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나병은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이다. 아픔을 모르게 하는 병이다.

심지어 눈이 가려워 눈을 긁다가 눈을 뽑아도 아픔을 모른다. 나병이 아픔을 못 느끼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감염으로 인해 죽는다.

양심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경고 시스템

롬2:14-15,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 있는 것들을 행할 때에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롬 2:15)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양심은 우리를 고소하거나 우리에게 대해 변명한다.

화평, 기쁨, 만족, 성취감을 주기도 하고 부끄럽게 하거나 죄의식을 갖게 하고 불안하게 하거나 낙심하

게 한다.

양심은 영혼의 경보 시스템,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것을 잘 알아야 한다.

그런데 양심은 영적 전쟁에서 진리(진실)와 성령님의 파위에 힘입어 홀로 싸운다.

아무도 양심을 도와주지 않는다.

고전2, 사람의 영만 사람의 영의 일을 안다.

거룩한 삶은 양심과 함께 시작된다.

거룩한 삶은 여러분의 삶을 다른 방식으로 배열하는 것이 아니다.

즉 바깥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바깥만 바꾸려 하면 위선자가 된다. 이것은 가식적으로 꾸미는 것이다.

왜 이 사회와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이 이렇게 죄의 수렁 가운데서 살고 있는가?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양심은 영혼의 경보 시스템, 사람의 영혼에 장착된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다 하나씩 있다.

양심은 도덕적 해이와 타락을 감지하는 영혼의 센서, 심지어 아마존 밀림의 원시인들에게도 양심이 있다.

양심은 인간의 구성 요소이다.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 모든 사람에게 하나씩 있다.

힌두교도, 불교도, 카톨릭, 그리스도인 불신자

다들 자기 양심에 따라 최선의 삶을 산다고 주장한다.

#### 양심과 정보

양심은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최상의 윤리적 법에 의해 정보를 받는다.

양심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다.

즉 양심도 타락하였다. 고전4:4, 나는 판단 받을 아무것도 스스로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이로써 내가 의롭게 되지는 아니하였나니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양심이 타락하였으므로 내 영적 상태를 결정하는 최종 결정자는 아니다.

그럼에도 양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결정자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영의 도우심,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돌하려 할 때 양심은 “기수를 들라”고 외친다.

이런 소리를 무시하면 결국 충돌하고 만다.

즉 내부 싸움에서 패하면 인생을 실패한다.

양심은 영혼이 자기 영혼을 비쳐 주는 것, 짐승은 이런 기능이 없다.

conscience: 나와 함께하는 지식

즉 자기를 바라다보는 것, 깊이 생각하는 것

생각, 동기, 의도, 감정 등을 평가하는 것

그리고 윤리적 평가를 내리는 것, 해도 좋다, 하면 안 된다.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인간 영혼의 작용이다.

그래서 양심이 제대로 작용하려면 바른 정보가 입력되어야 한다.

비행기의 레이더는 바른 정보를 보내 준다. 그러면 경보 시스템 작동

양심도 바른 정보가 입력되어야 바른 경보

무엇이 바른 정보인가?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최고의 바른 정보이다.

그러니까 양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등불이 아니라 들어오는 빛을 통과시키는 채광창

빛의 원천이 아니라 빛이 통과하는 채광창

그래서 올바른 정보가 들어와야 바르게 작동한다.

양심의 유용성: 얼마나 순수하고 바른 정보가 들어오느냐에 의해 정해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양심이 바르게 작동한다.

그러면 충동 위험이 있을 때 기수를 들라고 바른 경고를 보내 준다. 사람을 살린다.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숨겼나이다(시119:11).

즉 양심이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빛, 그러면 바른 정보 입력, 안전

요17:17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거룩함,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정보가 양심을 들어와야 가능하다.

그러면 양심이 올바른 경고의 메시지를 낸다.

성경은 레이다. 완전한 레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으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이 중요하다.

현 시대 문제: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 심리학, 오락, 이야기, 경영 전략, 변영 복음을 도입한다.

그러면 성도들은 결국 더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왜? 말씀이 없으므로 양심에 바른 정보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카운슬링 프로그램, 스스로 하는 자구책, 회복 프로그램

암 환자에게 대일밴드 붙여주는 것이다.

사탄의 전략: 성경 공격, 하나님의 말씀 선포 방해

구원, 성화 불가능

그래서 성경 대신 달콤한 이야기, 성공 이야기, 변영 이야기 책들이 넘쳐 난다.

그러면 죄로 가득한 교회로 타락한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게 하려면 두 가지를 하면 된다.

1. 그들의 양심에 성경 대신 다른 정보를 준다.

그러면 양심이 뒤틀려서 비도덕적인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사람들의 도덕 수준은 땅으로 곤두박질친다. 이것이 지금 현 세상의 상태

학교 교육 등

무신론, 진화론, 동성애, Free sex, 낙태, 사회주의 공산주의, 성선설, 유토피아, 상재적 진리(기준)

현 시대 모든 것이 왜곡되어 있다.

이사야, 선을 악, 악을 선, 단 것을 쓰다, 어둠을 빛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살려면 바른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생각과 양심은 같이 간다.

딤후1:15 순수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순수하나 더럽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순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 양심마저도 더럽혀져 있느니라.

2. 양심을 망가뜨리는 두 번째 것

기장이 시끄러워 하고 외치면서 경보 시스템 스위치를 끈 것처럼 양심의 소리를 묵살하는 것

확인 맞은 양심, 고장난 양심

부끄러운 일을 하면 죄의식이 생기는데 심리학자 등은 그런 것 다 버리라고 말한다.

즉 양심이 내는 소리를 끄라고 가르친다.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말라.

자기 존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람의 문제는 자기 존중 결핍에서 온다. 주변 환경에서 온다. 네가 문제가 아니다.

온 사회가 외치고 있다. “시끄러워” 그리고는 스위치를 꺼 버린다.

성도들의 상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히10:22).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 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히9:14)

성도들: 양심이 씻겨졌고, 성령님에 의해 청소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바른 정보를 받으면 죄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 그러면 거룩한 성도, 삶

경고 소리를 묵살하기 시작하면 양심의 민감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같은 죄나 잘못을 보고도 반응이 다르다.

고후1:12를 보자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또 너희를 향하여는 더욱더 그리하였노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바울의 기쁨, 왜? 왜 자기를 변호하는가?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 침투

교회가 바울을 괴롭게 함

거짓 교사들 수용, 이들이 바울과 바울의 가르침을 대체하려 함;

자기들의 거짓말을 가르치려 함, 바울을 끌어내림

그의 신뢰성을 부수려 함

이들의 주장: 바울이 큰 고난을 당하였다. 그 이유는 그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예 하고는 아니오 하는 사람이었다(17). 일구이언

추천서도 없는 사람이다.

그는 숨어서 악한 삶을 산 사람이다.

속이는 자이다.

술수를 부리는 자이다.

돈과 여자를 밝히는 자이다. 그는 존경의 대상이 아니다.

그는 약한 자이다. 말도 형편없다.

그러니 그는 이제 최대한 자신을 변호해야만 한다.

자기뿐만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도

그의 반응

추천서 보내마, 나는 좋은 사람이다, 2만 킬로미터 여행

그러나 바울은 그리 하지 않았다.

1;12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또 너희를 향하여는 더욱더 그리하였노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양심, 인간의 법정 중 최고의 법정

나의 내부의 증언: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또 너희를 향하여는 더욱더 그리하였노니  
바로 여기에 기록함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의 고백이 있다.

투명한 양심

행23:1, 바울이 공회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이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노라, 하거늘

행24:16, 벨릭스 총독, 이 소망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양심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힘쓰나이다.

딤후1:3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너를 기억하므로 내 선조들 때부터 내가 순수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 결론

거룩한 성도가 되려면 양심이 깨끗하고 투명해야 한다.

성도의 삶에서 동일한 죄들이 반복되면 성경 말씀이 양심에 흘러들어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니면 구원받았는지 점검

사람마다 양심의 민감도가 다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민감도를 높여야 한다.

작은 일 하나, 쓰레기 버리는 것 까지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깨끗한 양심을 소유하기 원한다.

깨끗하고 투명한 양심을 지켜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